

## 트럼프 “호르무즈서 선박 구출” 이란 “휴전 위반”

“프로젝트 프리덤... 방해편 응징”  
구축함-병력 1만5000명 투입  
“美호위함, 미사일 2발 맞고 퇴각”  
이란매체 보도에 美 “피격 안당해”  
靑 “美와 해협 문제 긴밀히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세계 각국 선박들이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시행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도 X에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행된다고 시리아-레바논 국경에 100대 이상의 항공기 스태프와 무인 플랫폼(공중 및 해상 드론 등) 1만5000명의 병력 등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대치 장기화 및 협상 난항이 지속되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조치는 이란이 전쟁 초기 해협을 봉쇄한 후 이를 재개방하려 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며 “이란의 군사 대응 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자국 선박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며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리도록 했다”고 썼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개인, 기업, 국가들을 구제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주의



코스피 사상 첫 6900 돌파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광판에 코스피 증가가 나타나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처음 6,900을 돌파해 7,000 달성을 눈앞에 뒀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정보기술(IT) 및 AI 인프라 관련 기업 주가가 줄줄이 올랐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방해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종전을 먼저 합의한 뒤 핵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대(對)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출구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변화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외교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4일 X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여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미 해군 호위함 1척이 이란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미 해군의 군함은 피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안정을 회복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이지윤·윤다빈 기자 ▶6면에 관련기사

## 지방 호스피스 태부족에 ‘원정 임종’ 떠나는 노인들

‘가정형’ 이용자 56%가 수도권  
“전국 어디서든 같은 서비스 필요”

혈액암으로 3년간 투병해 온 최모 씨(59)가 지난날 초 연명의료를 중단하자 가족들은 의료진이 집을 찾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에 호스피스 기관 자체가 없었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충북대병원은 포화 상태라 더 이상 환자를 받지 않았다. 최 씨는 결국 지난달 중순 중주의료원에 입원해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딸 김정아(가명·29) 씨는 “집에서 가족과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소원을 들어 드리지 못해 속상하다”며 “지방에도 익숙한 자택에서 호스피스를 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임종기 환자들은 열악한 호스피스 인프라 탓에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원정 임종’을 떠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2462명 가운데 55.7%(1372명)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호스피스를 받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의 58.8%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지방일수록 ‘내 집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심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지방엔 노인 인구 비중이 40%를 넘긴 곳이 많은데 호스피스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며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똑같은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2면에 관련기사

## 與,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로 처리 미룰듯

李 “특검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 시기-절차는 숙의해 판단해달라”  
野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

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입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이지은 기자 ▶5면에 관련기사

## 靑 “실수요 무관한 주택대출 안 주는 게 당연”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방침 시사  
기존 대출금 회수 가능성도 거론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과세 강화와 함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또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에 나섰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금’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논의)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대출)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이 거론한 것.

다만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비거주 1주택 매도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4면에 관련기사



## 작은 공 하나로, 꿈과 꿈을 이어 봅니다.

호프컵은 2016년 시작돼, 올해 4회를 맞이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전세계 결연 아동 축구 대회입니다. 10개국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축구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희망의 장입니다.

전체일정: 10/1(목) - 10/20(화)

- 10월 13일(화) 개회식
- 10월 15일(목)-16일(금) 예선전
- 10월 17일(토) 결승전

2026 호프컵 참가국



후원문의 | 02-544-9544 홈페이지 | www.kfhi.or.kr 후원 계좌 | KEB 하나 353-933047-56237 (사)한국제기아대책기구



기아대책 호프컵 페이지

